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신 불멸의 령도

그 이름도 유명한 명사십리, 조국의 동해기슭이 문명강국의 명승지로 그 면모가 보다 최첨단하게 일신되어가고 있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대만구상을 높이 받들고 애국투쟁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처럼 저역이 다르게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이곳에 화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몇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어 온 나라의 각광을 받고있는것인가.

방대한 지대에 대한 정리와 로반성도, 하루양공사 완공...

지난 5월 어느날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위악하고 전진하는 이 땅에서 령도적비광 창조되던 시기는 이제의 면모처럼 되어버렸다고, 기적에서 더 큰 기적에 한계를 모르고 줄달음치는 여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격격히 넘쳐 말씀하셨다.

새로운 건설기적!

동해의 명승지에서만 아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아래 첫 봉에 삼지연군이 로동당시대의 본보기군단과 하루가 다르게 훌륭히 변모되고있으며 단련전역이 편인 신화적인 건설속도창조로 부활을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 조국은 새로운 건설기적이 자랑한 성과와 더불어 아침이 다르게 저역이 또 다르게 번영의 활로를 열어가고있다.

하다면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기적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도히 끓어오르는 대하에도 그 시원이 있듯이 이 나라 천만군인이 끝없이 창조해가는 새로운 건설기적에는 그것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

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상이며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렇다. 조국방 방방곡곡에서 날에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과 혁신의 소식들을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조선은 영원한 기적의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철의 신념을 뜨겁게 새겨안는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찬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아보자고 해도 가슴씩 차다.

창원지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 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풍라인민유원지, 문수놀이장,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림송마구마루, 마시령스키장, 평양음악원과 애육원, 자연재해의 후과를 막을수 있는 천지개벽을 이룩한 라선방파제와 북부지역...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민주대안역에 창건거리가 새롭게 일떠서던 격동적인 창조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그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수족속처럼 솟아올랐던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면모를 일신한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대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뭉클 높여주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대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이렇듯 건설사업을 단순히 건축물창조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더없이 중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시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숭고한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데, 자신을 한 나라의 영도자이기에 인민의 창민 총부로서 생각의식을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우리 천만군민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조선은 영원한 기적의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철의 신념을 뜨겁게 새겨안는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찬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아보자고 해도 가슴씩 차다.

창원지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 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풍라인민유원지, 문수놀이장,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림송마구마루, 마시령스키장, 평양음악원과 애육원, 자연재해의 후과를 막을수 있는 천지개벽을 이룩한 라선방파제와 북부지역...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민주대안역에 창건거리가 새롭게 일떠서던 격동적인 창조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그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수족속처럼 솟아올랐던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면모를 일신한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대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뭉클 높여주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대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이렇듯 건설사업을 단순히 건축물창조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더없이 중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시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숭고한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데, 자신을 한 나라의 영도자이기에 인민의 창민 총부로서 생각의식을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우리 천만군민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조선은 영원한 기적의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철의 신념을 뜨겁게 새겨안는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찬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아보자고 해도 가슴씩 차다.

창원지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 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풍라인민유원지, 문수놀이장,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림송마구마루, 마시령스키장, 평양음악원과 애육원, 자연재해의 후과를 막을수 있는 천지개벽을 이룩한 라선방파제와 북부지역...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민주대안역에 창건거리가 새롭게 일떠서던 격동적인 창조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그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수족속처럼 솟아올랐던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면모를 일신한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대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뭉클 높여주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대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이렇듯 건설사업을 단순히 건축물창조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더없이 중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시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숭고한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데, 자신을 한 나라의 영도자이기에 인민의 창민 총부로서 생각의식을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우리 천만군민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조선은 영원한 기적의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철의 신념을 뜨겁게 새겨안는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찬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아보자고 해도 가슴씩 차다.

창원지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 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풍라인민유원지, 문수놀이장,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림송마구마루, 마시령스키장, 평양음악원과 애육원, 자연재해의 후과를 막을수 있는 천지개벽을 이룩한 라선방파제와 북부지역...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민주대안역에 창건거리가 새롭게 일떠서던 격동적인 창조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그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수족속처럼 솟아올랐던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면모를 일신한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대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뭉클 높여주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대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이렇듯 건설사업을 단순히 건축물창조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더없이 중시

혁명의 만년재보 오봉산 밀영

오봉산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국내비밀근거지창설방침에 따라 창설된 신승지구 비밀근거지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나라와 민족의 만년재보로서 인민대중을 수령이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전승으로 훌륭히 무장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가장 큰 감화력을 가진다.》

오봉산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숙영하신 귀촌지이다. 그 귀촌지는 영웅방향을 지니고 있는데 정인은 온몸으로 하고 분비나무와 가문비나무로 귀촌을 짜고 동기와를 얹어주었다.

그밖에 대한실과 밭전던 자리 등 혁명유적들과 유물들, 어머님의 귀중한 혁명적유물들 등이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반영되어있는 구조물들에는 천송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웅과 백두광명성을 맞이한 영광이 넘쳐있는 환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씩씩 사투리 투사들의 필승의 신념과 굳은 결의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오늘도 밀영을 찾는 탐사자들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사의 그 나날 총검의 숲을 헤쳐서 조국방면에서 조국방면의 혁명적위업을 이루어오시기 위하여 전력적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으로 새겨안고있다.

본사기자 정순화

오봉산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숙영하신 귀촌지이다. 그 귀촌지는 영웅방향을 지니고 있는데 정인은 온몸으로 하고 분비나무와 가문비나무로 귀촌을 짜고 동기와를 얹어주었다.

그밖에 대한실과 밭전던 자리 등 혁명유적들과 유물들, 어머님의 귀중한 혁명적유물들 등이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반영되어있는 구조물들에는 천송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웅과 백두광명성을 맞이한 영광이 넘쳐있는 환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씩씩 사투리 투사들의 필승의 신념과 굳은 결의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오늘도 밀영을 찾는 탐사자들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사의 그 나날 총검의 숲을 헤쳐서 조국방면에서 조국방면의 혁명적위업을 이루어오시기 위하여 전력적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으로 새겨안고있다.

본사기자 정순화

김영남 동지께

뛰르기에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양귀라
뛰르기에공화국 대통령 레세프 라이프 에르도간각하

나는 당신이 뛰르기에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는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께

김영남 동지에게 나미비아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카이로에서 위무성 부상 허옥복동지가 기에 참가하였다.

엘리아 조지 주조 나미비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카이로에서 위무성 부상 허옥복동지가 기에 참가하였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필요로 한다. 과학교육부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중심시대를 열어주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국가적보장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일군의 기질 - 심중성

심중성은 곧 자기 사업에 대하여는 끝이 연구하고 제기된 문제를 로숙하게 처리하여 훌륭한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심속고요를 의미한다.

일군의 심중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에 자못 중요하다.

무슨 일이나 깊이 새겨보고 심중성을 기하는것은 일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일군들은 맡은 사업을 심사숙고하고 로숙하게 하여야 한다.》

일군은 마땅히 열변, 백번 심사숙고하여 모든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군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서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로숙하게 처리하는 심중성을 체질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언제인가 한 일군은 외부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받았다. 문제의 성격으로 보아 시간적 여유를 두었다가 심중하게 협의하든가 그 답변을 주어야 하였으나 그는 즉시에 생각한바를 말해주었다. 일중은 후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내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좀 연구하여 보고 토론하여 알려주겠다고 여지를 주고 저희들이 연구해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얼마나 여유적작하시고 심사

뜻이 담겨져있는것인가. 새겨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되새겨진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도 다 잘 새겨보아야 하지만 특히 사람들의 정치적경향과 관련된 문제는 대개는 열변, 삼두번 검토하여 생각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돌봐주려는것은 바로 이런것을 넘겨주는것은 아니다. 자식같은 어머니들이 왜 일찍 머리가 센지는 아는가. 육체적으로 고된다고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

말을 만나지 않는것은 먹은것을 계속 새김질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사업의 리치도 이와 다르다. 문제를 새겨보지 않고 처리하면 재할 수 있으며 때하면 말이 생기기때문이라는 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지금껏 풍속적이고 평범한 비유이지만 그속에 얼마나 깊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동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분이기

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사상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

문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체의 사상을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일군들 가운데는 문천시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며 사람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은 시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가운데 시의 면모가 일신되고 종이 공장, 연료사업소, 종이사업소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현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시도체양묘장이 훌륭하게 일떠서고 도로와 공원, 강하천정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체육관과 어린이교공공원의 완공을 비롯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가 이룩한 성과들은 많다.

몇가지 사실을 놓고보기도 하자. 지난해 7월 시내중심부를 지나가는 기본도로의 석축공사와 저대정리사업을 진행해 대였다. 조건이 어려워진지 공사속

도는 그리 늦지 못하였다. 제기된 문제를 놓고 해당 부문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문제토의에 열을 올리고있는 일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장 책임일군은 문득 하나의 사실에 주의를 돌려보았다. 대다수의 일군들이 실무적인 문제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할 때 풀어나가려고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이 와 같은 편향은 시인의 다른 부분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과 시적으로 벌려놓은 일,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끝을 맺지 못했거나 손대 대지 못하고있는 현상들이 초매되게 되었던 것이다.

일군들의 가슴속에 대중의 사상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각부터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시장 책임일군은 도로석축공사와 저대정리를 통하여 사상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 주기로 결심하였다.

시장전선전투부 일군들의 책임임을 더욱 높이는 것과 함께 시의 청년동맹, 녀맹조직을 비롯하여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도록 하였다. 대중의 사상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치사업자료를 만들고 일군들이 이제 시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주민들속에 들어갔다. 또한 도로방열에 붉은기

과 속보관들을 제시하고 시가공예선선동대와 녀맹예선선동대를 비롯한 모든 선전선동령을 총동원하여 화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드도록 하였다. 은 시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일군들과 주민들속에서 결된 자체와 로력해결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 결과 단 며칠만에 수많은 막돌과 세멘트, 로력이 해결되었고 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일군들은 대중의 사상을 발동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하나로 뭉쳐진 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시장 책임일군은 이를 계기로 은 시에 사상전, 선전선동의 합한 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갔다. 우선 대중교양에 이바지하는 교양저널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선진적인 힘을 넣었다. 짧은 기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리수실이 정형히 꾸러지고 여러 리수제지들에 혁명적인 글발을 새긴 붉은 기발형식의 구조물이 새롭게 도사렸다. 또한 시내중심부에 있는 여러 어린이수영님들의 태양상주변을 환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과 계급교양관 교양마당장 공사도 진행되었다.

시장 책임일군에서는 이와 함께 은 시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갔다.

시내의 여러곳에 혁명적인 구호들과 붉은기들을 직방제시하고 방수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매일 아침 녀맹원들의 출근길행진이 진행되고 학생소년들과 전경로병들의 경제선동활동도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또한 공장, 기업소단위로 순서를 정하고 다양한 주제의 경제선동공연을 준비하여 시인의 일군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나날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시도체양묘장 건설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시장 책임일군은 이때에도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갈 결심을 굳혔다.

공사에 앞서 시장 책임일군에서는 시인의 일군들이 모인 기회를 리용하여 한편의 특화편지를 보여주었다.

근 몇달동안 시가 이룩한 성과들을 차례로 례화하였다. 도로석축공사, 강하천정리사업, 어린이교공공원과 체육관건설, 역전마당장사업, 그물우리양 어장건설...

비록 걸지 않은 특화편지들이었지만 그 실효는 새겨져 있었다. 일군들 모두가 열렬히 호응해 나왔다.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갈 때 불가능한 일이란 있을수 없다!

300여명의 일군들이 그걸로 인민반들이 나가 주민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자기들의 불같은 심정을 그대로 도로하며 일군들은 대중을 모태양묘장건설에 불어넣었다.

공사는 첫날부터 화신선전, 화신선동의 불도끼로 화하였다. 일군들 모두가 선전선, 선동원이 되어 대중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대중의 열의는 더없이 양양되었다. 문맹동원의 인민반들이 펼쳐나와예제에 설치할 콘크리트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차례로 해결하면서 한문 단단한 한 사실을 실례로 들수 있다.

모태양묘장건설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문맹동원 양양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단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끝날수 있게 되었다.

혁명적인 사상공포로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거나 고이는 시장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으로 하여오는 시에서는 놀란단 한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었다.

이곳 시장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다스리던 화신화가 되는 줄기가 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사상이며 가장 위력한 무기도 사상이라야겠다.

본사기자 윤병철

애국심을 불려일키로 보여주기사업

경제하는 최고경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며 은 사회애국의 열정을 일으켜 내도나도 애국사업에 열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초였다. 양명철초급당위원장은 불철식수를 앞두고 여러 산림감독부소들에 나가 나무심기준비정황을 료해하였다.

산림감독사업에 대한 좋은 편견을 가지고 산림감독원들은 불같이 헌신하고있었다. 하지만 다 그런것은 아니었다. 일부 산림감독원들속에서 전심을 바쳐 양묘장꾸러기와 판리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양묘장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열쳐나서도록 요구성을 보이지 못하는 편향들도 나타나고있었다.

산림조성사업이 해마다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여 임업부서에서 대하는 그들의 편견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초급당위원은 그 편견이 어떤지 자기자신에게 있

김책시 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에서

는 못있었다. 애국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산림감독원들은 해당 지역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대중의 눈길이 덜 미치는 높고 험한 산밭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조국의 재부를 늘여야 할 그들의 땅집에 한걸의 터라도 생김새라 깊이 마음속에 예경성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당일군들이었다.

초급당위원장은 산림감독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 잘해 나가라라고 결심하였다.

그는 김일준지배인과 무릎을 마주하고 산림감독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산림감독사업에 대한 좋은 편견을 가지고 산림감독원들은 불같이 헌신하고있었다. 하지만 다 그런것은 아니었다. 일부 산림감독원들속에서 전심을 바쳐 양묘장꾸러기와 판리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양묘장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열쳐나서도록 요구성을 보이지 못하는 편향들도 나타나고있었다.

초급당위원장과 지배인은 이곳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불철식수를 앞두고 보여주기사업이 임업지구의 이갈나무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여기서 초급당위원회가 잘한 것이 있다. 산림감독원들만이

아니라 당세로위원장들이 모두 참가하도록 한것이다. 그것은 임업지구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가 이곳 당초급일군의 힘있는 정치사업의 결과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후른 일제를 한껏 펼치고 무성하게 자란 이갈나무를 돌아보며 산림감독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머구기 임업지구의 산림감독원들과 산리유반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꾸준히 진행한 당초급일군의 경험모론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어운을 남기었다.

보여주기사업의 실효는 컸다. 모든 산림감독원들이 애국심은 자기가 맡은 한구루한구루의 나무들에 그대로 바치게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분발하게 되었다.

지난해 불철식수에서 산림경영소가 거둔 성과는 이같이 보여주기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산림부구 및 국토환경보호법 일군회의에서 김책시는 산림부구전투 1단계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이곳 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방법론있게 진행한 결과이다. 보여주기사업은 실속있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종업원들의 애국심을 높이고 당초급의 사업에 본받을 점이 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얼마전 우리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기보수직장을 찾았을 때 보게 된 종업원명단은 어디서나 흔히 보는 부러뜨려온 책이었다.

이름, 생년월일, 성격, 취미, 가족...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매 종업원들의 급수였다. 연필로 찍어 진 기술기급급수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우리와 만난 김장식직장은 종업원들의 기술기급수준을 부러뜨려온 책에 비례 훨씬 높았다.

우리와 만난 김장식직장은 종업원들의 기술기급수준을 부러뜨려온 책에 비례 훨씬 높았다. 작업이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보수가 수시로 제기되는데 맞게 작업반에 여러개의 조를 꾸려놓았다. 고급기능공을 책임자로 하고 기능이 낮은 사람들을 담당시켜 대상자들에게 나가 설비들을 직접 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능을 높여주게 하였다.

고급기능공들의 방조 밑에 기능이 낮은 로동자들은 직접 기계를 다루면서 원리를 파악해나가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기술기급수준을 높여나갔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로동자들의 기술기급수준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당, 행정일군들을 발동하여 작업반별로 기술혁신경쟁을 자주 조직하는 한편 평가사업을 잘하는 방법으로 종업원들의 기술기급수준을 높여나갔다.

직장안에 집단적 기술혁신의 분위기를 세우게 하기위하여 하는 방법으로 기술혁신경쟁을 진행하도록 초급당위원회는 당적 지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급수법에 따르는 평가사업도 공정성의 원칙에서 하였다.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 평가를 함께 배합하였다. 이렇듯 노력하여 기술기급수준을 높여나갔고있는 종업원들은 3대혁명투쟁은 경쟁취응명예를 자랑하며 자랑하고 있다.

이 나날 많은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어있는 인을 내놓고 창고의 인명수로, 발명가들로 자랑하였으며 직장은 기업소적으로 전투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랑받게 되었다.

결론은 무엇인가. 당조직들이 종업원들의 기술기급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벌여주고 방법론있게 진행할 때 기적의 비약적발전은 이룩할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최근년간 제정된 국가기술수준 평가사업은 선진영웅장에서는 선진영웅장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이들을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직장안에 과학기술정신을 새겨넣어 줄수 있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 나날 많은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어있는 인을 내놓고 창고의 인명수로, 발명가들로 자랑하였으며 직장은 기업소적으로 전투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랑받게 되었다.

결론은 무엇인가. 당조직들이 종업원들의 기술기급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벌여주고 방법론있게 진행할 때 기적의 비약적발전은 이룩할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일군의 실력과 결의력

재령군 신환포리당위원회 일군들

다하고 본 그는 판리위원일군들과 토로하여 비료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농장에서 강행이러게게도 아쉽기, 비료정확배를 비롯한 다수확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제 된것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대외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리당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태어놓고 생각하였다.

당일군들이 결의력이 있어 내 용적인 지도를 할수 있다. 지난 5월 어느날 평양화력발전공장을 추진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울 때였다.

로력부서가 긴장한 때에서 판리위원일군들은 로력배치문제를 놓고 실투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리당위원장은 모내기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령령을 총집중하여 강행이발달매기를 다 시한한 할것을 제기하였다. 일단 모내기를 시작하면 한문인 발레로력을 돌리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농사의 교훈을 되새겨주었다. 하여 농장에서는 모내기전투전에 강행이발달매기 매기를 끝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일 단위가 자기 부문에 정통하고 자기 단위를 한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 일군들이 유망과 열성만으로는 전진하는 대외의 기관차가 될수 없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일군의 실력이 기관차의 속도이며 전진력이다.

이것이 이곳 리당위원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갖게 되는 결론이다.

본사기자 김승영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담 진행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정형 국토교통부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 회담함에 따라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담이 하였다.

2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동, 서해선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혁명의 랑만과 희열에 넘쳐

2. 8비료분과회담이 끝났고 공업기술연구소에서는 군중무용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항일혁명군중무용을 보급하는 사업을 통하여 종업원들 모두가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혁명적박주주의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2018년-2028년 지속개발을 위한 물 국제10년행동에 관한 국제고위급회의에 참가하고 26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리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리

121호림업연합기업소에서

키고 물집에 의한 통나무나르기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투적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양목양류업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오늘도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서 불타는 열의와 신장의 피를 흘리며 물길조사를 정리를 다그치고 날마다 매물어성파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산관에서 내려온 통나무를 양목양류업의 배무어들에게 바싹 집근시켜주는 다음 배무어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장간장을 리용한 매물어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자서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힘과 창조적열정을 합쳐 실재하는 능률적인 매물어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배무어운동, 경험교환, 등을 힘있게 벌려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통나무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매물어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부전, 성과림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치열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열의와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펼쳐나갈 결심을 열의있게 매물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 2018》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18》이 개막되었다. 《온실남새농사열풍, 다양한 남새제품의 육성과 도입》이라는 주제로 11일부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다양한 품종을 온실남새생산에 받아들여 이룩한 좋은 성과들과 경험들이 발표되었으며 맛있고 영양가 높은 남새제품의 재배 재기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기본으로 하여 과학기술강화, 실기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새로 육화된 양배추, 도마 등의 생물학특성과 재배 기술을 반영한 논문들을 비롯하여 실용적의가 큰 과학기술제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6일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동지와 농업성 부상 리재현동지, 농업연구원 원장 김광욱동지, 관내부서 일군들, 온실남새생산부문과 과학, 교육기관들의 과학자, 기술자, 재배자들이 참가하였다.

제막식에서는 이번 과학기술토론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으며 해당 시상도 있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재현동지는 제막식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토론회기간에 습득한 과학기술과 재배방법들을 생산실천에 적극 받아들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 2018》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18》이 개막되었다. 《온실남새농사열풍, 다양한 남새제품의 육성과 도입》이라는 주제로 11일부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다양한 품종을 온실남새생산에 받아들여 이룩한 좋은 성과들과 경험들이 발표되었으며 맛있고 영양가 높은 남새제품의 재배 재기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기본으로 하여 과학기술강화, 실기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새로 육화된 양배추, 도마 등의 생물학특성과 재배 기술을 반영한 논문들을 비롯하여 실용적의가 큰 과학기술제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6일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동지와 농업성 부상 리재현동지, 농업연구원 원장 김광욱동지, 관내부서 일군들, 온실남새생산부문과 과학, 교육기관들의 과학자, 기술자, 재배자들이 참가하였다.

제막식에서는 이번 과학기술토론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으며 해당 시상도 있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재현동지는 제막식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토론회기간에 습득한 과학기술과 재배방법들을 생산실천에 적극 받아들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스위스에게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귀국

2018년-2028년 지속개발을 위한 물 국제10년행동에 관한 국제고위급회의에 참가하고 26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리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 도착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 도착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 도착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 도착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 도착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 도착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 도착

노르웨이 직접지사 위원장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 능력있는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새로운 비약으로

합 흥 의 학 대 학 에 서

보건기술인재양성의 민음적인 기지의 하나인 합흥의대대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보광이다.

지난 기간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을 중시하고 이를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많은 성과를 올렸었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번 전 사회의 목적을 교육에서 학생들의 실천적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동하는데 있었다.

그러하여 실험실습에 필요한 30여종에 100여점에 달하는 실험실습설비들과 기구들이 전사회를 적극 추동하는데 있었다.

모든 학부들과 강좌들에서는 지난 시기 고장으로 리용하지 못하던 실험실습설비와 기구들을 전부 수리정비하였을뿐 아니라 여러종의 설비들을 종류와 결합된 새로운 설비들로 갱신하여 주체로 생산제작한 설비와 기구들도 많이 내놓았다.

전사회를 준비하던 날에 학부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 전사회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족현황이 많은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실험실습설비들과 기구들을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왔다. 이와 함께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종전의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공작기계도 합쳐가면서 많은 설비들을 갱신하였다.

전사회에서는 설비, 기구들과 함께 학생들의 실천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인체모형들과 각종 관동교육자료를 내놓았다.

대학에서는 실천적능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심장기능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진단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같이 관동교육은 실천적능력을 중시하는 의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주체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할데 대한 경여하는 현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모든 교원들이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한 새 교수안들을 제시하였다.

전사회마다에는 기초교육, 원리교육, 리론교육을 강화하며 관동교육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해 늘 아끼고 아끼는 대학교육자들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여있었다.

전사회를 통하여 모든 교원, 연구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다음에 진행되는 전사회에서 더욱 우수한 전사회들을 내놓을 결심들을 굳혔었다. 이렇게 해마다 열리는 전사회는 대학에서 따라오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모든 교원, 연구자들이 불타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대학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일군들은 이 사업을 혁신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의 원서번역을 지도

해 주 의 학 대 학 에 서

해주의학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약품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는 대학에서 새 제품개발을 적극 다그치는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해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밀착화를 실현하는것은 일류급대학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보건부문에서 심장혈관계통질병, 암성질병, 물질대사질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미라막기 위한 대책을 바르게 세우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서 연구자들이 찾아내고 연구개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그러한 연구자들로서 최근 대학에서 자체의 과학기술력향상을 위하여 보건부문에서 연구개발사업에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대학일군들의 고집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일군들은 우선 대학의 과학연구력향상을 위하여 과학과 교원, 연구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집단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사실 연구사업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고 연구집단을 출세 시킬아나가는 것이다.

대학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학위소유자들로서 연구사업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간다는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군들이 앞장서서 연구사업에 대한 장려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은 해독, 물질대사중추군제로 쓰이는 비만증치료약

을 비롯한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들 수 있다.

첨단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위암 및 간암진단치료약은 약성종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위암 및 간암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하는 제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또한 해독제와 비만증치료약은 지금 임상실험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것으로 하여 앞으로 치료사업에 널리 쓰일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나노제 품으로 된 간경변증치료약과 같은 다양한 의약품들을 개발하여 보건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대학일군들의 고집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일군들은 우선 대학의 과학연구력향상을 위하여 과학과 교원, 연구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집단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사실 연구사업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고 연구집단을 출세 시킬아나가는 것이다.

대학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학위소유자들로서 연구사업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간다는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군들이 앞장서서 연구사업에 대한 장려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은 해독, 물질대사중추군제로 쓰이는 비만증치료약

있었다.

개발성과로만 끝난것이 아니라

교원, 연구자들이 개발과정에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제때에 교수내용에 반영하여 강의에 리용하고있다.

연구성과들이 그대로 교수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사업에서 큰 밑천으로 되어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그러하여 학생들이 대학에서 거둔 연구성과들과 그 개발과정을 깊이 파악하면서 현실과 밀접히 결부된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실천능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일군들은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강좌들이 서로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과학의 개발을 적극 다그쳐 나가도록 하고있다.

결국 새 제품개발이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될뿐 아니라 대학의 전민적인 교육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당의 교육정책과 보건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그에 기초하여 의학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는 이 대학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또다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정령에로 달려가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발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양양된 기세와 열정의 의해 보다 큰 과학교육 성과들이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에 대한 의학교육에서 리론교육을 앞세우면서 실천교육, 실험실습과 전공실습을 강화하여 그들을 다 리론과 실천이 결합된 능력있는 보건일군으로 키워야 하겠다.》

뜻 잊을 주체 97(2008)년 5월 합흥의대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의 교수요양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지난 10년간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올렸었다.

해마다 현지지도기념일을 계기로 진행되는 교육과학사 전시회를 통하여도 잘 알 수 있다.

얼마전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도 10년을 맞아 교육과학사 전시회가 열리었다.

한편을 통하여 교수지도일군들은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다. 특히 경험강사가 그들에게 준 어은은 매우 컸다.

확실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교수자의 립장에서 볼 때 교수수업이 적으면서도 높은 교수수준을 보장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교수안들을 만들어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교원들이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으로 되었다. 특히 토론시간이 길어지고 학생들의 질문도 더 많아지는 조건에서 이에 대응하려면 관련분야의 지식까지 모두 알아야만 하므로 교원들이 더욱 분발하게 했다.

학생들의 립장에서 보면 중점강의를 통하여 원리적인 내용을 인식한 기초위에서 서로의 토론을 통하여 누구나 사고하는 주체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강의의 중심이 되어 예습과 복습을 결합할 때만이 배운 지식을 충분히 소화할수 있으며 자체학습능력도 키우게 된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인식능력을 높여주고 창조적사고를 개발시켜준다.

이 교육방법을 대학의 자체실정에 맞게 일반화하고자 하니 일부 의견도 제기되었다. 교수 밑으로 배 보정할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학일군들은 우선 이 교육방

법적으 로 밀고 나가는 사업 으 로 내세우고 여기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대학에서는 교수관리를 통하여 강의에 출연한 교원의 자질을 높고 학부별 교수수준을 대강 다음 그것을 다 시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법, 과학연구사업과 학위논문 집필정형, 외국어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사업 등을 통하여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적극 추동해나가고 있다. 이 모든것을 교원의 중점화, 동속화를 실현하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도 보다 더 엄격히 작성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게 할수 있도록 그들이 학습에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고있다.

이것이 대학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한층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것은 두말할 것 없다.

지금 모든 교육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대한 교육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열의가 넘치고 있다. 이 위대한 교육방법을 받아들이는것으로 만족할것이 아니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용해나갈 때 학생들을 주체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실력향상에서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이 대학의 사업성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조 함 III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의 원서번역을 지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의 원서번역을 지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의 원서번역을 지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의 원서번역을 지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의 원서번역을 지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외국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의 원서번역을 지도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의 밀착시켜

해주의학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약품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는 대학에서 새 제품개발을 적극 다그치는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해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밀착화를 실현하는것은 일류급대학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보건부문에서 심장혈관계통질병, 암성질병, 물질대사질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미라막기 위한 대책을 바르게 세우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서 연구자들이 찾아내고 연구개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그러한 연구자들로서 최근 대학에서 자체의 과학기술력향상을 위하여 보건부문에서 연구개발사업에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대학일군들의 고집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일군들은 우선 대학의 과학연구력향상을 위하여 과학과 교원, 연구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집단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사실 연구사업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고 연구집단을 출세 시킬아나가는 것이다.

대학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학위소유자들로서 연구사업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간다는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군들이 앞장서서 연구사업에 대한 장려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은 해독, 물질대사중추군제로 쓰이는 비만증치료약

목표가 높아야 전진의 보폭도 크다

활북종합대학 강건의학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

대학의 행에서 자체의 힘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것은 위은 일이다.

하지만 일군들은 이 공사가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도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고 보았었다.

그런데 잘 임명되었던 대학책임일군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었다. 본래의 전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때때로 하는 식으로 작성된 개진행안만 문제로 되었었다.

학생들의 생활에 실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공사를 열면 하던 무슨 필요가 있는가. 비록 힘이 들어도 당에서 바라는 바에 따라설수 있게, 먼 훗날에 손에 익게 식당을 종이 크게 개진하자.

책임일군의 이러한 관점과 립장은 공사분위기를 순간에 일변 시켜놓았다.

이들 계기로 교육사업전반을 대하는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관점과 일본새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것이 책임일군의 립장이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높은 목표도 정명할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것이다. 하다면 그 자신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지난해 9월 대학에서 식량개진공사가 시작될 때였다. 당시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교수의 중점화실현에 모를 박고

평성의학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합판을 통하여 교수지도일군들은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다. 특히 경험강사가 그들에게 준 어은은 매우 컸다.

확실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교수자의 립장에서 볼 때 교수수업이 적으면서도 높은 교수수준을 보장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교수안들을 만들어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교원들이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으로 되었다. 특히 토론시간이 길어지고 학생들의 질문도 더 많아지는 조건에서 이에 대응하려면 관련분야의 지식까지 모두 알아야만 하므로 교원들이 더욱 분발하게 했다.

학생들의 립장에서 보면 중점강의를 통하여 원리적인 내용을 인식한 기초위에서 서로의 토론을 통하여 누구나 사고하는 주체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강의의 중심이 되어 예습과 복습을 결합할 때만이 배운 지식을 충분히 소화할수 있으며 자체학습능력도 키우게 된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인식능력을 높여주고 창조적사고를 개발시켜준다.

이 교육방법을 대학의 자체실정에 맞게 일반화하고자 하니 일부 의견도 제기되었다. 교수 밑으로 배 보정할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학일군들은 우선 이 교육방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한시간, 두시간...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가까이 할뎀을 말려진 강구조조립팀을 일정대로 끌고 오고 때때로 내려오는 리내철, 홍기총동무들을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작업반원들이 일사언했다. 이는 이런 미더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승고한 투쟁의식은 비단 이틀속에서만 발휘된것은 아니다.

련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2조립팀장전투원들이 가스발생로 회오리탕조립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지난 4월 어느날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부장인인공인 김영철동무는 뜻밖에도 연공 34작업반의 한경호동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조성민, 신용성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불타는 작업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강철기공조립을 두시간이나 앞장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차 11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그날 강철기공조립전투원들은 장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힘 있는 건설부대의 영예 떨치며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동계

내려올뎀을 하지 않았다. 교대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작업반원들의 해설소리도 듣지 못하는듯한 밤하늘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몰라야 할 때였다.

